

장수한우, 안전관리통합인증 시동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기반 조성 위한 협약체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매회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인증이 된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장수한우’가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획득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장수한우지방공사(성영수 사장)은 21일 장수한우지방공사 회의실에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과 안전관리통합인증 기반 조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인증원장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해 장

수군청 축산과, 한우협회 장수군지부 등 약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보다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인증원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소속 조 합인 HACCP 특별 교육과정개설 및 지원, HACCP관리 전담 심사관 배정 및 교육·기술지원, HACCP인증심사

수수료 감면, 안전관리통합인증 적용을 위한 현장기술지도 등을 적극 실시한다.

장수한우지방공사도 HACCP 전담조직 구성, HACCP 활성화를 위한 예산, 교육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한다.

성영수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고의 품질로 고객을 만족하는 장수한우가 되기 위해서는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제 획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HACCP 유통망을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한우를 찾아 드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만 인증원 원장 또한, “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평가한 결과, 농장, 가공·유통분야에서 HACCP인증 업소수와 브랜드 매출액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수한우지방공사도 통합인증제를 빠른 시간 내에 획득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읍민의 장 수상자 6명 확정

진안군 진안읍(읍장 김종구)은 최근 읍민의 장 선정 심의회를 열고 수상자 6명을 확정하였다.

이날 심의회(위원장 김종구)에서 문화체육장 이상봉(72)년, 공익장 신애숙(54)년, 산업근로장 이영춘(54)년, 애향장 태기봉(57)년, 효열장 강운자(66)년, 우복성(81)년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문화체육장에 선정된 이상봉님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진안읍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하며 진안읍체육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공익장 신애숙님은 진안을 원연장마 을 이장이 원연장 꽃잔디축제 조직 위원장으로서 원연장 꽃잔디축제를 해마다 성공리에 추진하여 진안을 홍보하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산업근로장 이영춘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인 홍삼주를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였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진안홍삼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등 홍삼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애향장에 선정된 태기봉님은 1985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30여년 동안 경찰근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서울생활 중에도 고향발전을 위해 재경향우회원으로 적극적 활동하여 소통과 민남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효열부문의 강운자님은 진안을 검복에 거주하며, 22세에 결혼하여 40여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세가 깊어

문화체육장 이상봉 공익장 신애숙 산업근로장 이영춘 애향장 태기봉 효열장 강운자·우복성

진 시어머니를 자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어 현대에 아주 보기 드문 효부라 주변 이웃들이 칭송이 자자하여 효열장에 선정되었다.

같은 효열부문의 우복성님은 진안읍 외오전에 거주하며 어린나이에 시집 와서 40여년간 시부모님을 묵묵히 봉양하고 6년 전에는 남편이 병석에 누게 되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고 손수 남편을 간호하는 그 정성이 자극하여 효열장에 선정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화상담과
063-430-2951



‘함께 어울려 살아요’

무주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무주군은 21일 무주읍 예천문화관 대공연장과 반딧불체육관 일원에서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군이 주최하고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지회장 김병하)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이대석 행정복지위원장, 백경태 도의원을 비롯한 시각장애인협회(지회장 주의식)와 농아인협회(지부장 조기상) 회원 등 장애인 가족 7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장애인복지관 은하수 밴드와 장애인후원 단체인 주계음우회의 축하공연과 기념식, 장기 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회식은 김우철 씨(63세, 부남면)와 정래욱 씨(58세, 안성면), 박현 씨(54세, 무주읍)가 신체적 불편함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

장애인으로서 군수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이순용 씨가 장애인을 대표해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권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경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인권 헌장을 낭독해 관심을 모았다.

황 군수는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더불어 행복한 무주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마음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군에서는 무주군민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주군의 장애인 인구는 모두 2,470명으로 군은 장애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활동보조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관 및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8억 8천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장애인의 날 행사 성황

장수군은 21일 관내 장애가족 6백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장수한우리 전당에서 제36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장수군장애인연합회(회장 양해도)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기념식에 이어 모범 장애인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전달, 모범 장애인 자녀중 대학생 3명, 고등학생 4명에 대해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또한 장애가족들은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장기 및 노래자랑을 통해 회원들의 화합을 다지며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특히 이상철 성암농조합 대표가 장수군장애인연합회 공공관총사절단의 노후화원 공공관총교체를 위해 4백만원을 후원해 주위로부터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게 했다.

양해도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열린마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우리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신념을 갖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특별리포트

완주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선정

완주군이 도내 지역 유일하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향후 3년간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포함 매년 10억~14억을 지원받게 되어, 적극적인 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운동으로 더욱더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관리제 대상인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대 분야와 주민 불안감과 관심이 높은 범죄분야에 대해서는 ‘안전문화운동’과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삼례시장 주변지구, 우석대~완주우체국 구역, 삼례초등학교 주변, 원승마을 등 4개 지구를 중점개선지구로 선정되어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안 고향할머니장터 ‘복적복적’

진안군은 진안장날(4, 9일)이면 고향할머니장터가 열려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텃밭에서 재배한 청정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다.

특히 봄이 오면서 고향할머니장터를 통해 각종 채소와 나물이 판매되고 있어 옛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진안시장과 고향할머니 장터를 찾는 외지인들의 발걸음이 부쩍 늘었다.

특히 주말시장을 오픈해 외지인이 주로 찾는 수삼, 대덕, 도라지, 표고 등 신선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코너 그리고 기존에 운영 중인 할머니장터로 구성해 매 주말(토·일)에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안의 대표 특산물인 흑돼지의 시장내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안산 돼지고기 전문 판매점과 고기를 직접 구입 후 구워먹을 수 있는 흑돼지 셀프식당도 조성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영철 서부지방산림청장 무주국유림관리소 첫 방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2016년 지난 20일 무주국유림관리소를 처음 방문했다.

이날 김영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민주지산 선도산림경영단지와 독일기분비 우량숲을 시찰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원과의 소통 시간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과 화합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국민 행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림행정 3.0 실천의 주체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열정과 창의성이 가득한 활기찬 관리소, 최고의 산림행정 기관이 되도록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경찰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진안경찰서(서장 박정근)는 21일 진안초등학교 전교생 28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스마트폰 세대에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서플 등의 학교폭력 유형 및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교육했다.

장지선 순경은 “황재팬권이 영하90°C까지 내려가는 남극 흑한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추운 바깥쪽 자리를 서로 바꿔가며 이동하는 것처럼 진안초등학교 친구들도 서로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